사 설

'日帝의 불교정책' 발간 의미

자료의 중요성은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상과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과 불교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일제 강점기이다.

민족적으로도 이 시대를 이끈 사상과 인물의 행적이 이 시대의 지도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불교적으로도 한국불교의 법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3년간의 작업 끝에 펴낸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은 발간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만 35년동안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 매일 발행한 조선총독부(통감부) 관보 1만4백50호의 내용 중에서 불교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불교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 30본산 연합사무소, 주지 이동, 사찰 창립 및 변경, 포교, 사찰재산, 일본불교의 활동 등 일곱 주제로 나누어 편찬한 이번 자료는 한국불교의 근대사를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불교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기초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만공스님이 금강산 마하연의 주지로 있으면서 53선지식 또는 유점사 53불을 뜻할 수 있는 53명의 선승들과 함께 참선 수행을 한 기록 등 근대불교의 중요한 사실들 그리고 일제의 불교정책과 관련한 일거수 일투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큰 수확이다.

일제의 치밀한 통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빠짐없는 자료비치는 거꾸로 우리의 자료에 대한 가치 인식의 부족을 반성하는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밝힌 대로 범죄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노출될 것을 염려해 이번에는 제외한 문화재 관련 자료도 정부 등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아래 보존대책을 마련한 다음 빠른 시일내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각사지 발굴중단 안된다

한 민족의 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뿌리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민족 생명의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국보 2호인 원각사 탑이 있는 탑골공원은 민족혼을 되살린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상징한다.

서울시가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각사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혼으로부터 보호받고, 7천만 한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찬사 받을만한 거룩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공원녹지과가 "성역화 사업의 장기간 공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성역화 사업을 전면 취소하게 됐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미 착공하여 발굴 중이었던 사업을 돌연 중단, 성역화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시의 단편적인 졸속 행정의 극치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만약 탑골공원이 불교의 사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면 한반도의 5천년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의 뿌리를 말살하려는 처사일 뿐 아니라 세계 문화인으로부터 규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1897년 영국인 브라운 씨의 건의에 따라 국내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7천만 민족문화인의 부끄러움인데, 모처럼 원력을 세워 서울시립박물관 발굴 팀이 투입되어 발굴작업을 하여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조차 포기를 하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적극 재검토하고 계속 추진돼 국가적 문화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탑골공원은 불교 유적지로 성역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원각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무리하여 민족혼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의 민족문화를 자랑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 원각사 터의 발굴 작업 성공으로 원각사 탑과 보신각종을 연결하는 문화유산의 현장이 드러나게 되면 인사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종로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세계인에게 더욱 돋보일 것이다.

미궁에 빠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사의표명 · 재정난 겹쳐

불전국역硏 등 폐쇄…동국대 합병설도

이사회 올 예산 확정

극심한 재정난과 함께 총장 종범스님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앙승가대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종단과 중앙승가대 양쪽 모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1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 5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0년도 예산 결산 및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중앙승가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정대스님은 학교 측의 자구노력 부족에 불만을 나타내며 '승가대학 특별운영팀'을 구성해서라도 학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국대와 합병을 하는 것이 중앙승가대를 살리는 길이라는 일부 이사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중앙승가대는 그동안 밀렸던 직원들의 월급과 단수·단전 위기까지 몰렸던 각종 공과금 체납을 가까스로 해결했으나 이같은 일이 되풀이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게다가 불전국역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는 재정부족으로 지난 5월 이미 문을 닫은 상태고, 8월 이후에는 다른 부속기관들의 폐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대학 본래의 기능을 잃을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 18억9천만원보다 35% 증가한 25억6천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재정위기를 돌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앙승가대의 입장이다.

실제로 중앙승가대가 안고 있는 부채만 해도 김포학사 공사대금 등 127억2천만원이나 되는데다, 당장 올해 10월 갚아야 할 공사대금 5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종범스님이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중앙승가대는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학교 예산 25억6천만원 외에 승가학원 전체 예산을 71억4천여만원으로 확정하고, 기존 교학처, 총무처, 기획실 3개 부서 체제에서 기획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안암학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익용 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며, 잔여임기를 채워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 종범스님에게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신흥사 중앙종회의원 도후스님 무투표 당선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중앙종회의원에 도후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신흥사는 23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개최하고, 단독입후보한 도후스님(철원 심원사 주지)을 신임 종회의원으로 선출했다.

도후스님은 1968년 신흥사에서 성준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74년 법주사에서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90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불교방송 이사장, 철원 심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원우기자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해외파견예정인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주최로 13일부터 16일까지 경주 석굴암과 통도사 등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조계, 태고, 진각, 총지종, 원불교 소속의 국제포교사 52명은 경주 불국사, 안동 하회마을, 경기도 이천 도예원과 충주 문화재 단지, 횡성 김치공장, 수원 삼성전자 등을 방문하고, 도자기 만들기, 김치만들기 불국사 다보탑 탑돌이, 새벽예불 등의 체험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해외에 나가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게 된다.

김원우 기자

"승랍 10년내 4안거 의무화"

조계종 교육관련 법안 의결…고시 · 법계위 구성

조계종 교육원은 18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51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가교육 제도 및 승가고시법, 법계법 등 관계 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 오는 8월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승가교육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승려는 승랍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최소 4안거 이상을 성만하고, 종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이수해야 하며, 법계품수 년한을 기준으로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임하도록 했다.

주요 관계종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교육법의 경우 일반승려 교육을 '일반교육'과 '직무 직능교육'으로 분류하고 '일반교육'은 10년 단위 이내로 승가고시 및 법계체계를 기준으로 실시토록 했다.

종무원법 및 승려법의 경우는 임용기준 중 결격사유에 규정된 교육과 법계를 품수치 않은 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주지임용과 관련해 임기 내 필수 교육연수를 이수치 않은 경우 연임되지 않도록 했으며,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고 법계를 품수한 자에 한해 도제(상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문화된 고시위원회법을 승계해 본 법 내에 '고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로급 스님들로 구성되는 '법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의 승가고시법과 법계법을 개정했다. 한명우 기자

'직지와 문화' 법인 발족

충북 각계 150명 구성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천된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우수성과 정체성 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직지찾기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단법인 '직지와 문화'가 다음달 중순 출범한다.

(사)직지와문화 준비위원회는 지난 97년 출범한 청주시민회(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직지찾기운동본부를 해체하고, 충북도내 학계와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경제계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은자 기자

갱신기한 넘긴 포교사 복권

조계종 포교원

갱신기한을 넘겨 자격이 상실된 포교사들에게 복권 기회가 주어진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종무회의를 열어 징계에 의한 사유가 아닌 갱신기한을 초과한 포교사 중에서 향후 포교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포교사들에 한해 복권시켜주기로 결정하고,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해 8월18일까지 복권신청서류를 접수키로 했다.

복권을 신청한 포교사는 신청접수 후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활동을 충실히 하여 해당 교구본사 포교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포교원은 각 본사 포교국의 추천을 받아 복권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포교원 회의에서 의결 자격을 복권시켜줄 방침이다.

자격이 정지된 포교사들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활동부족으로 자격갱신에서 탈락하거나, 3년마다 해야 하는 자격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명우 기자

통도사 현문스님 주지 직인 '인수'

통도사가 18일 총무원에서 임명장을 받은 현문스님이 주지 직인을 포함한 인수인계를 마쳐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본지 제327호 3면 기사참조)

현문스님은 임명당시 총무원의 중재에 따라 교환했던 합의서 이행과 관련 원산스님과 의견차를 보여 임명장을 받고도 주지직인을 넘겨 받지 못했으나 이날 인수인계를 마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천미희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인터넷에 광고라도 내야…

담 화 문

지금 종단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종통을 계승하고 있는 정통종단을 해칠 목적으로 지난 7월 10일 소위 전국승려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헌종법에도 없는 불법적인 전국승려대회까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지난 14일 그 주동자들에 대하여 승적 정적(停籍)처분을 내렸는 바 이들은 이미 태고종 승려로써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들은 앞으로 종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추호도 참회하는 빛이 없이 종권탈취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 한 채 선량한 종도들을 현혹시키고 불순세력을 규합하여 오직 그 성취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려로써의 양식과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국승려대회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불법집회 이오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절대 현혹되거나 그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법집회의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 집회에 휩쓸려 동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종 중앙종회의원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는 종회법 제62조 제63조에 의거 중앙종회의원의 위신을 실추시킨해종행위이므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불법집회에 동참하거나 그 명단에 오른 자는 종헌종법에 의하여 해종 행위자로 간주하고 의법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명단에 오르는 일이 있을 시에는 즉시 총무원에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종단화합과 종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5년 7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최혜초 ·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박운곡

公 告

지난 7월 10일 서울 남산타워호텔에서 일부 불순세력들이 정통종단의 종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위 한국불교태고종 종단 바로세우기연합 발기인대회라는 것을 개최했던 바 그 위원회의 조직기구표에 의하면 덕암종정예하께서 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도들께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종정예하께서는 오래전부터 와병중이어서 전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며 그것을 허락하 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본인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일부 불순자들의 엄연한 날조이며 사기임이 분명하오니 이에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5년 7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최혜초